

STORY

시즌 1 : 스토리 요약

챕터#1 시원 고등학교의 노스웨스트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하여 만든 게임, 라 프레임.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루시드사는 게임 회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어와 게임 캐릭터가 동기화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루시드 사가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를 인수하면서 라 프레임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등 거대한 소셜 미디어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때문에 라 프레임은 게임이면서 일상 생활까지 깊게 침투한 메이저 플랫폼이 되었다.

한편 시원고등학교의 라 프레임 동아리 노스웨스트는 대세를 거스르며 여전히 게임플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전학생(플레이어)가 입부하게 된다. 그는 기억은 물론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노스웨스트 멤버들과 전학생은 입부 테스트로 서울 맵의 '해치' 토벌에 나선다. 플레이어는 신입답지 않은 정교한 솜씨로 테스트를 통과한다. 이후 플레이어가 게임을 로그아웃하려던 찰나,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종류의 버그를 발견한다.

이후 부장 한백지와 호승심 높은 부원 경청아, 친화력 높은 부원 정주율과 노스웨스트 활동을 지속한다. 다같이 PVP 대전을 하거나, 던전을 돌거나, 얼떨결에 학생회의 라이브 공연을 도와준다. 이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학생회장 이하음의 아이돌 이중생활을 알게 된다. 한편 노스웨스트는 전력 강화를 위한 과금을 하고자, 시원고 라멘집에서 단체로 일일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 가게는 학생회 심이빈의 집에서 운영하는 가게였고, 그 자리에서 다음 공연 때도 도와달라고 약속한다.

공연 당일 플레이어는 단독행동에 나선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버그에 어떤 이끌림을 느낀 플레이어는 해당 버그를 추적하도록 한다. 버그를 추적하던 그는 우연히 스토커에게 정체가 들킬 위기에 있던 이하음을 발견하고 도와준다. 그 순간, 플레이어의 손에 버그가 손에 잡히고, 공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전에 가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그곳에서 단둘이 숨어 위기를 넘긴 이하음은 플레이어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이후 부실로 돌아온 플레이어는 자신을 찾아온 루시드사의 한성지를 만나게 된다.

STORY

챕터#2

한성지는 노스웨트의 부장 한백지의 누나이자, 루시드사의 회장 최필우의 비서이다. 한성지는 플레이어가 버그를 통해 들어간 공간의 이름이 '크랙룸'이라고 설명한 뒤, 크랙룸에서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자원 '크랙스톤'에 대해 설명한다. 크랙스톤을 통해 캐릭터의 힘을 시스템 이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엄연한 버그이지만 루시드사는 이 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채굴하는 일에 협력을 요구한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라고 말하고는, 응할 마음이 생기면 루시드 본사로 찾아오라고 출입증을 건네준다.

플레이어는 버그 현상을 접한 뒤로, 이전에 쓸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플레이어의 신기술을 보고 라프레임에서 저런 기술도 가능한 것이었냐며 의구심을 보인다. 그러자 플레이어는 크랙스톤을 보여주며, 버그와 한성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놀란 일동은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말하지 그랬냐고 따지다가 회의를 시작한다. 플레이어의 말을 교차 증명하기 위해 학생회장 이하음을 찾아간 일동. 아이돌 활동에 대한 것은 아직 들키지 않은 것에 안심한 이하음은 플레이어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결국 버그에 대한 것은 학생회 회의 안건으로까지 번진다. 최종적으로 노스웨트에서 2명, 학생회에서 2명이 루시드 본사로 가보도록 정한다. 학생회에서는 갈 사람을 정하기 위해 내기성으로 던전을 플레이 한다. 그 결과, 노스웨트 측에서는 플레이어와 한백지가, 학생회에서는 이하음과 비서 표이서가 함께 가기로 한다.

한성지는 자기 동생을 포함한 다른 사람과 찾아온 플레이어에게 화를 낸다. 동생 앞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는 그녀지만 프로답게 예정된 일처리를 진행한다. 그녀는 플레이어 일행에게 회장 채필우의 업적을 줄줄이 설명한다. 게임 업계의 전설인 것, 가족을 잃었음에도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한 점, 게임 라프레임으로 갱신한 다양한 기록들... 그리고 루시드 과학의 결정체인 인공지능 캐논을 보여준다. 그곳에서 플레이어는 캐논의 컴퓨터 수십 대가 일제히 자신을 바라보는 감각과, 게임 속이 아님에도 허리춤에 총의 감각을 아주 짧은 순간 느낀다.

한성지는 플레이어 일행에게 크랙룸의 조사와 크랙스톤의 채굴을 의뢰한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캐논을 붙여준다. 어째서 그녀의 이름이 인공지능인 캐논과 같은지나, 신상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라고 침언한다. 하지만 플레이어는 왠지 그것이 가명일 것이라고 직감한다.